

영조 시기의 정치와 사회 모습

1. 탕평책의 실시

-목적 : 신하들의 다툼과 나뉘음을 막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내용 : 어느 한쪽 신하들의 편을 들지 않았고, 서로 다른 무리의 신하들이 **골고루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탕평비** : 신하들이 무리를 나누어 다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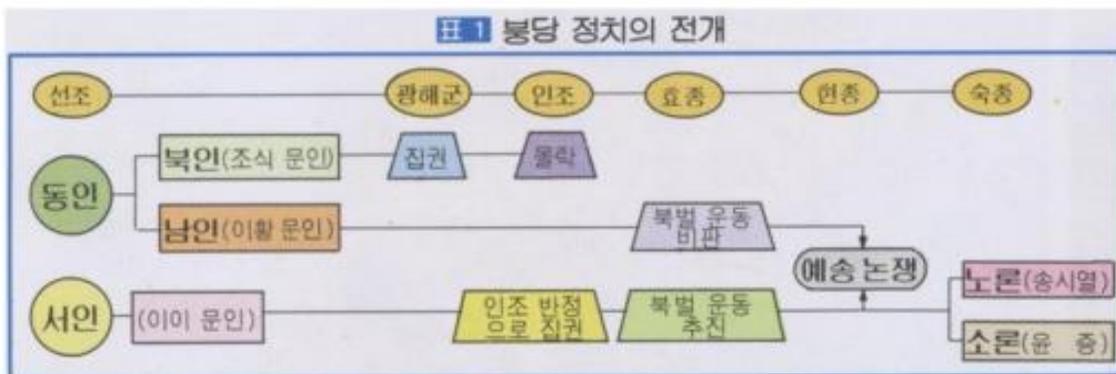
← 남과 두루 친하되 편당을 가르지 않는 것이 군자의 마음이에요. 편당만 짓고 남과 두루 친하지 못하는 것은 소인배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 전통한식 '탕평채'가 유래되었다.

붕당정치: 정책에 대한 공론 형성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당쟁: 붕당정치가 변질되어 여러 무리로 나뉘어 정치적 싸움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생 안전

- 균역법 실시

1. 균역법 시행 전

16세 이상 된 남자들은 군사가 되는 대신 **베(옷감)**를 나라에 바쳐야 했다.
처음에는 한 해에 **2필**을 내야 했다.

2. 백성들의 어려움

고된 농사일을 하면서 베를 짜 나라에 바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관리들의 횡포로 백성들이 내야 할 베는 점점 많아졌다.
백성들 중에는 고향을 등지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베를 바치지 못해 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3. 균역법의 시행

영조는 백성들이 내야 할 베를 **1필**로 줄이도록 하였다.

- 지나친 악형 금지: 사형수를 처벌하기 전에 세 번 조사하도록 하였다.

- 신문고 부활

3. 문물 정비



- **속대전**: 조선후기 법전 / 조선전기 법전: 경국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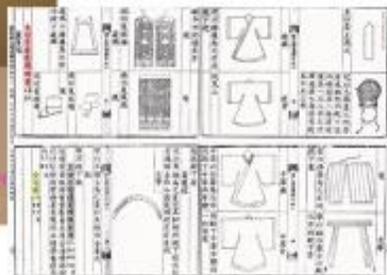
- **속오례의**: 왕실의 예법

- **동국문헌비고**:

영조의 명령으로 **홍봉한**이 제작했다.

조선 문물제도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백과사전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소개되었다.



정조의 탕평책과 개혁 정치

1. 탕평책

▶ 적극적 탕평책 실시

→ 노론의 독점을 막기 위해 소론·남인 등용



2. 왕권 강화

▶ **규장각** 개편: 원래 왕실 도서관이었던 규장각을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치 기구로 만들

▶ **젊고 유능한 관리**를 선발하여 개혁 세력으로 육성

▶ **장용영** 설치: 국왕 친위 부대(국왕의 군사적 기반 강화)

3. 민생 안전

-서열·노비에 대한 차별 완화

-**금난전권 폐지**: 시전상인 vs 난전상인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던 **시전상인**들은 궁궐과 양반들에게 고가의 물자를 공급 유통하는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 또한 불법상인들인 **난전상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 즉 **금난전권**도 있었다. 나라에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시전상인들에게 준 혜택이었으나 나중에는 시전상인들의 독점과 횡포가 이어지자 정조는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한다.



4. 문물 정비

- **대전통편**: 『경국대전』 이후 300년만에 새로운 통일 법전이 이룩되었다.
경국대전(성종)→속대전(영조)→대전통편(정조)



- **동문회고**: 17세기 초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조선이 청, 일본과 주고받았던 외교문서를 모은 외교자료집



- **탁지지**: 호조(재정, 통계)의 자료를 정리



수원 화성

1. 건설 이유
신하들의 세력에 맞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2. 계획 도시 화성
농토를 개간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정치, 군사적 기능을 부여하고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실학자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 등을 활용하여 건설하였다.



▶ 공심돈

속이 비어 있는 돈대라는 의미
 내부가 비어 있어 군사들이 계단으로 올라
 다니면서 적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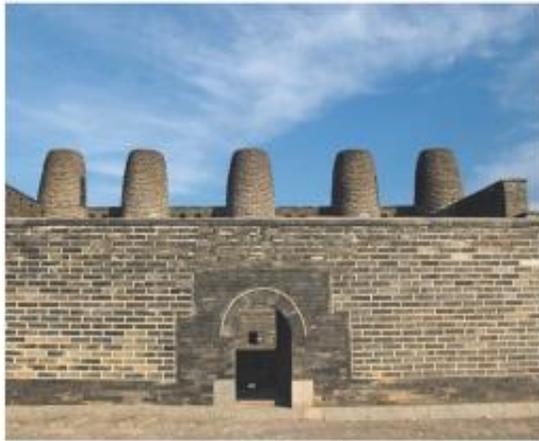
▶ 장안문, 팔달문

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옹성**을 만들었음
벽돌과 돌 사이에 구멍을 만들어 공격할 수 있게 하였음



▶ 봉돈

성 안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을 피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화흥문(복수문)

화성의 북쪽 수문으로, 수원천이 넘치는 것을 막아 주는 동시에 방어적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 서장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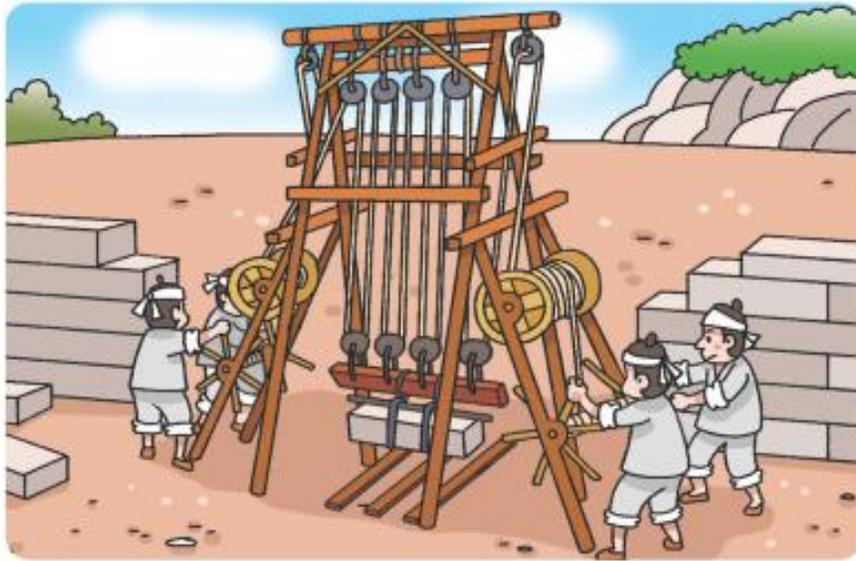
화성에는 동쪽과 서쪽에 군사 지휘소인 장대가 있다. 서쪽에 있는 것을 서장대라고 한다.



1. 거중기

원리 : 움직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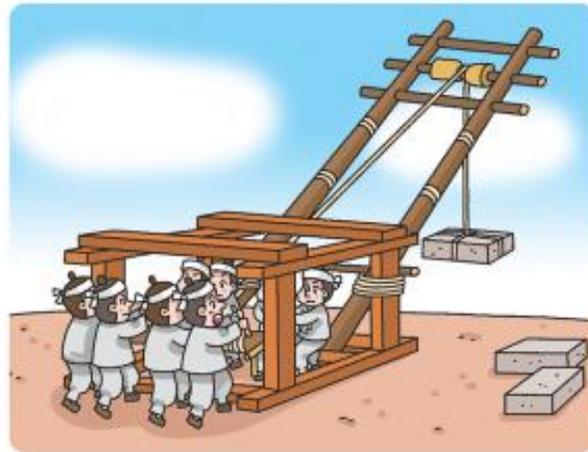
쓰임새 :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장치



2. 녹로

원리 : 고정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기구

쓰임새 : 물건을 높은 곳으로 옮기는 장치



“한국은 그 어떤 군대 없이 지구를 침략했다” 외신의 극찬

입력 : 2020-04-11 04:30/수정 : 2020-04-11 04:30

<읽기 시작 시간: 시 분>



<스페인 월간지 '아이콘' 4 월호 한국문화특집 기사. 주스페인한국문화원 제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사태를 겪고 있는 스페인에서 한국의 **방역**(prevent an epidemic) **역량**(competence)과 의료 기술에 이어 경제·문화를 조명해 **극찬하는**(praise highly)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11 일 주스페인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스페인 3 대 일간지인 '엘문도'(EL MUNDO)는 지난 7 일 '한국, **자가진단**(self-diagnosis) 앱 사용률 90%'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대응 사례**(correspondence case)를 소개했다. 신문은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대부분 국가가 **봉쇄령**(a blockade ordinance)을 발령했지만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투명한 정보 공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적 방식의 방역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스페인 최대 일간지인 '엘 파이스'(EL PAIS) 역시 지난 1 일자 '코로나 19 시대의 의사소통' 기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의 BBC 인터뷰 내용을 **언급했다**(mentioned). 그러면서 "정부(government)와 **지도자**(leaders)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urgent) 상황에서 한국은 실제로 투명하고 명확하고 적절하게 이 위기에 대응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스페인 언론의 극찬은 한국 문화계로까지 확대됐다. 엘 파이스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아이콘'(ICON) 4 월호는 '문화강국(cultural powerhouse)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특집 기사를 무려 4 개 면에 게재하며 한국 문화가 성공한 배경을 설명했다.

잡지는 "한국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플라즈마 스크린뿐만 아니라 **활력(vitality)**과 **매력(attraction)**, **다양성(diversity)**으로 **점철된(dotted)** 문화산업을 수출한다"며 "세계 11 위 경제 대국, 수출 규모 세계 6 위인 한국의 위상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SNS 에서 화제가 된 '집에서 즐기는 한국' 시리즈. 주스페인한국문화원 제공, 연합뉴스>

이러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 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며 "소프트파워라 불리는 ㉠**얌미울(cheeky)** 정도의 매력으로 **무장한(equipped)** 한국이라는 강적 앞에 심지어 자유주의 엘리트로 여겨지는 할리우드도 항복했다"고 썼다.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도 "독창성과 탄탄한 구조 덕분에 수출이 용이하며 이국적 매력과 함께 모던하고 도시적이며 코스모폴리탄한 이미지를 균형 있게 조합해 보여준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 미술계에서 두각을 드러낸 한국 현대미술과 문화 수출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K 팝을 극찬했다. 또 스페인에서 발간된 손원평 작가 소설 '아몬드'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토틀넘), e 스포츠 산업, 김치 등 한국 음식 등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소프트파워의 파노라마를 완성한다"며 "**한국은 그 어떤 군대도 없이 지구를 침략했다**"고 마무리했다.

전홍조 주스페인 대사는 “스페인 현지 언론들이 방역 당국의 신속한 대처, 탄탄한 의료 인프라, 뛰어난 IT 환경 등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 능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호평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읽기 끝난 시간: 시 분>

- “한국은 그 어떤 군대 없이 지구를 침략했다”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스페인의 3 대 일간지 ‘엘문도’는 한국의 어떤 COVID-19 확산 방지 대응 방식에 칭찬하였나요?
 2. 스페인 최대 일간지 ‘엘 파이스’는 한국의 어떤 COVID-19 확산 방지 대응 방식에 칭찬하였나요?
 3. ㉠의 ‘얄미울 정도의 매력으로 무장한 한국’은 어떤 표현인가요?
 4. 기사 제목인 “한국은 그 어떤 군대 없이 지구를 침략했다”는 결국 한국의 어떤 것을 극찬하는 것인가요?